上代 說話文學에 보이는 人間像

張　　主　　根

— 차 례 —

一. 說話文學의 槪念
二. 說話文學의 性格
三. 人間性의 意義
四. 說話文學에 보이는 人間像
五. 結　言

一. 說話文學의 槪念

說話文學이란 무엇이냐 하는 問題에 對한 簡單한 說明이나 定意規定을 거이 不可能에 屬하는 問題이다。 뿐더러 說話라는 語彙가 가지는 槪念에 對해서도 至今은 限界를 確定지은 統一된 見解에 到達하지 못하고, 그 本質이나 限界에 對해서도 몇몇 差異있는 見解를 뽑으려면 찾아볼수 있는것이 現學界의 實情인것 같다。至今 여기서 說話文學이라고 한것은 神話(myth), 傳說 (legend), 民譚 (folk-tale)으로 三區分이 되는 上代 散文文學의 三分野를 統合한 것으로서의 說話文學 (Tradition) 을 指稱한다。

說話文學의 槪念이나 限界를 確定키 爲해서는 먼저 그 三分野인 神話 傳說 民譚의 本質 差異 限界等을 細論해야겠으나 그것은 피으

나 長荒한 일이겠기 여기서는 삼가야할 일이고 危殆로운 일이겠으나 簡單히 一般的인 共通性과 差別性, 相互 關連性에 對한 言及으로서 그 槪念을 一段 밝혀볼가 한다。

于先 三者가 다 같이 一定時에 一定한 個人에 依해서 製作된 個的文學, 文字를 使用한 記錄, 定着文學이 아니라 마치 茂盛한 들판의 草木처럼 自然發生을 해서 原始集團 全体의 心性을 反映하는 集團, 民族의 文學이요 口口 傳承의 變化 流動文學이란 点에서는 同一하다。

그런데 첫째의 神話는 太初的인 觀念世界에서의 神格의 活動을 主로한 神聖 崇嚴의 記述이다。 그것은 天地開闢이나 宇宙創造, 또는 民族 乃至 始祖의 起源에關한 原始的 思考의 解釋 說明 說話들을 비롯해서 天体, 氣象, 山川草木을 모든 自然界의 神秘, 恐怖, 嘆美, 疑問等에 對해서 切實히 天文이며 氣象이며 物理며를 科學하고 探求하던 原始人들의 解釋 說明 說話들이다。 이를테면 맨몸둥이로 아무렇게나 蓬萊한 原始의 大自然속에 내던지워진 原始人들의 自然에 對한 神秘와 恐怖와 嘆美와 疑問, 그리고 그思索等 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神話는 非但 이 모든 自然 現象에만 科學하고 藝術하는 心性으로 머물은 것은 아니다。 人間의 誕生, 成長, 老衰, 死亡, 戀愛, 結婚, 憎惡, 慣習, 制度等等의 人文界 諸事象에 對해서도 思索하고 哲學하고 또한 藝術하는 心性으로 解釋 說明의 說話를 無數히 만들어 냈다。

그래서 神話란 모든 自然界 人文界 諸事象이 原始的 思考法을 通해서 神格化되고 그 神格들의 活動을 基盤삼고서 이루어진 解釋 說明의 說話들이다。 그것은 自然 人文 兩界에 걸친 모든 現象의 解釋 說明임으로 해서 今日의 모든 自然科學 人文科學의 未分化 綜

合 原始体라고도 할수 있는것이다。

무제의 傳說에 對해서는 區々한 學者들의 見解때문에 더욱 簡單히 말하기 어려우나 막쓰, 뮤르러 (max muller)의 말대로『古代神話의 神들이 後世的으로 半神 半人間的 英雄으로 變했을때에 되는 說話』라고 一段 前提하는것이 좋을듯하다。傳說은 타이라(Tylor)의 말대로 많은 歷史性, 史實性도 內包하는 것이나 거기에 나오는 人物들은 全的으로 實在할수있는 人間들이 아니라 多少間의 超人間化, 英雄化를 입은 存在들이다。그래서 神格과 人格과의 協働活動의 敍述이된다。神話나 傳說이 上代人들의 主觀으로서는 다 같이 全的인 事實이겠으나 以上과 같은 意味에서 우리들의 客觀에 依하면 神話는 全的 非事實이거나 또는 事實의 原始的 思考의 反映이고, 傳說은 半事實 半非事實이다。 그러니 傳說은 神話처럼 時間 空間의 制限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一定時代와 一定地域에 限定되서 이루어지는 異常事象의 記述이다。 다시 말하면 多分히 歷史性 事實性을 內包했다는것이다。

셋째의 民譚은 一種의 社交行爲며 興味本位인 娛樂交歡의 文學이다。傳說이 때로 人物들의 系譜까지 따질수 있는데比해서 民譚은 主人公의 이름을 必要로하지 않고, 時間이나 地域觀念, 그리고 事實性까지도 度外視하고, 一定한 主題를 所有하고 意外로도 綿密한 構成밑에 때로 大團圓을 形成한다。具体的인 例를많이 들었어야할 必要性을 느끼면서도 紙面關係로 그것은 省略하고 說話文學의 槪念과 그 三區分, 그리고 그異同, 連關性을 簡單히 以上과 같이 規定해본다。

우리 韓國의 境遇에서 볼것같으면 說話文學의 훨씬 後代的인 이 民譚의 時期에 이르러서 說話文學은 거이 庶民의 품안으로 안겨들어가고 古代小說을 胚胎해서 그 誕生前夜를 이룬다。 여기서 우리

는 在來의 散文文學上의 上代分野의 空白을 이 說話文學의 再檢討와 分析으로 부터히 메꾸어야할 必要性을 느끼고있는것이다。 同時에 甲午更張 以前까지의 이른바 古代小說도, 그러니 上代뿐이 아니라 中世, 近世의 散文々學도 그 文學性으로 보아 그것을 考察하는 角度나 立脚地를 때로 여기에 두어야할 必要性을 또한 느껴야 되는것이다。

二. 說話文學의 性格

1. 產出의心性

說話文學은 앨푸렡•휘일칸트 (Alfred Vierkandt)가 命名한데로 「低級文化民族의 神話的 思考法」에 依해서 產出됐다。 그 心性은 極히 初步的이고 乳兒的 原始的인 野蠻人들의 思考法에서부터 싹트터나왔다。 本來 神話란 超自然的 靈威의 意志活動을 基盤삼은 野蠻民族의 自然界 人文界의 諸事象에 對한 解釋 說明의 說話이다。

이제 그 心性이 갖는 特徵을 추려서 條目別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宇宙에 어떤 超自然的인 勢能이 있다고 믿는것。
2. 그 勢能을 한 存在態로 보고 그 存在態가 自然界 人文界의 諸事象을 創造했거나 支配한다고 믿는것。
3. 原因을 內的으로 보지않고 外的으로 보고, 過程을 有機的 進化的으로 보지않고 一時的 飛躍的 直觀的으로 完成됐다고 生覺하는 傾向이 센것。
4. 矛盾됨을 모르는것。
5. 時間 空間의 制限을 받지 않는 点。
6. 性意識의 强大性等。

이러한 心性에 自然界, 人文界, 諸事象中或者가 驚異感情이나 探究의 知的 慾求를 일으키는 境遇에 이에 對한 解釋說明이 생긴다。 여기에 神話發生의 機緣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隣接科學 部門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示唆를던져주고 方便을 던져 준것이 있으니 그것은 心理學分野에 새로 登場한 精神分析學이다。 一般心理學이 意識心理를 研究對象으로 삼는데 對해서 그들은 無意識 心理를 對象삼는다고, 精神分析法을 들고 나왔다。 獨特한 그네의 精神分析法이 우리들의 上代人 心性分析에 커다란 暗示를 주기로 하거니와, 男子보다 女子에게, 成年보다幼年에게, 覺醒時보다 醉中乃至는 몽想時에, 文明民族보다 原始民族에게, 뚜렷이 더 많다고 하는 無意識 心理의 特徵이 低級文化民族의 神話的 思考法과 洽似하다는것이 우리에게는 重要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方法을 들고 神話學의 分野에 肉迫해 오며 「꿈은 個人의 神話며 神話는 民族의 꿈이라」고 커다란 命題를 내세움에 이르렀다。 實로 說話文學은 民族의 꿈으로써 上代人들의 素朴한 人間性을 바탕삼고 그 위에 수놓인 空想 理想 希望 憧憬들의 大파노라마이다。 神話가 反映하는 原始文化形態의 野蠻素, 不道德的 要素들에 對해서도 제본스(Jevons)는 그것이 다 未熟心의 反映이라고 했다。 未熟心은 오늘날 成熟心의 연源이요, 根本体로서, 不健全한 部類의 文明 文化도는 그遺産이나 傳統이라는 것에 물들고 시들고 이즈러진 生命이아니라, 蒙昧는 했을지언정 茂盛하고 싱싱하게 生氣한 心性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心性들에 依해서 産出되고 形成된 說話文學의 世界는 素朴하고 生氣찬 生命을 더전삼고 上代人들의 希望과 理想과 憧憬으로서 이루어진 燦爛착綜한 花園이다。

2。 그 變化過程

타이라 (Tulor)의 말대로 Animism時代에 原始人들에 依해서産出된 初期의 說話文學은 그들의 心性과 文化形態, 生活環境들을 內包하면서 不斷히 傳承되어 왔다。一切의 傳承은 모두 口傳形式을 取해서 時間의 흐름에 따라서 司祭者에게서 司祭者에게로, 職業的 傳承人에게서 다시 職業的 傳承人에게로, 老人에게서 靑年에게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아들 손자들에게로 縱的인 繼承이 되었다。橫으로는 地域的으로 甲地에서 乙地로, 一大陸에서 他大陸에로 遊牧과 移動과 戰爭과 旅行과 文化交流等으로 分布를 繼續했다。이 縱的인 繼承, 橫的인 分布를 合한 不斷한 傳播는 그長久한 歲月에서 說話文學本來의 執요한 粘着性에도 不拘하고 많은 發達과 變化를 繼續시켜왔다, 中途에서 文學記錄法이 發明된 後부터는 더욱 그 流動變化性에 硬化를 가져왔고, 또 그 記錄에서 빠진 落伍者들은 때로 神話에서 民譚化 現象을 보여주었다。

그 變化에 두 種別이 있었으니 하나는 宗敎 精神 智力等의 發達에 따르는 內的 變化요, 하나는 物質的인 生活環境, 社會環境의 發達에 따르는 外的 變化이다。長久한歲月에 걸치는 이 變化 發達은 後代文學을 胚胎하면서 自身도 漸次的인 變容으로 新文學에의 進出을 보여 주었다。그리고 그 自体는 人類의 精神面과 物質面, 即 內面과 外面의 發達로 그 神話的 思考의 停滯 沈滯로서 다시는 誕生될수 없는 不任期에 들어서고 만다。

3 文學的性格

모든 生物体와 같이 이러한 發生과 成長과 衰殘의 全段階에 걸쳐서 說話文學이 가지고 있었던 文學으로서의 性格은 數千年 數萬年에 一貫해서 空想主義 浪漫主義的인 色彩를 띄어왔다。近世에 들어온 以後 四, 五世紀間의 文學思潮上에서 우리는 數많은 主義와 流派

의 起伏 盛衰를 보이왔다。그것은 文學史的인 흐름에서 複雜 多端하기 짝이 없는 近代性을 反映한것이라고 할수있는 것이며니와 主義와 流派를 모두해서 百을 헤아리고도 남음에 이르고 서로 甲論乙駁하며 反動하고 流行하여 왔다。 感覺主義 超現實主義 다다이즘 立体主義 共産主義 主知主義 等々 大括해서「傾向派」에 歸屬시킬수 있는 이 流派들은 精神面의 建設的인 開拓은 하나 없이 스타일面에서 新奇를 자랑함으로써 一部人士들에게 現代의 唯一한 新生面이나 全面的인 特質인것처럼 誤認을 시키고 있다。窮極的인 生의 信念아래 精神의 꽃을 피울수있는 沃土는 하나도 開拓하지 못하고, 다만 旣存하는 生의 意義에 對한 懷疑 否定 破壞에 그친 이들에게는 眞正한 意味의 새로움이란 있을수 없고 建設이 있을수없었다。

또한 現實主義 寫實主義 自然主義等 一聯의 系列文學은 人間社會의 暗黑 慘憺한 面에 觀察을 기우려서 이르러진 그네들의 人間觀 社會觀을 表現해 왔다。에밀, 조라 (Emile Zola) 를 代表로 하는 이들은 露骨的인 性慾描寫, 宿命的인 遺傳患者, 中毒者들의 蠢動하는 暗黑街를 그려서 讀者의 이마살을 찌프리게 하고, 貴한 人間의 꿈을 抹殺하기에 注力했다。모든 男子를 野卑하게만 生覺하고 모든 女子를 唾棄하여 人間의 美点은 보지 않고, 사람이 가지는 高尙한 動機는 理解하려 들지 않고, 人類가 動物以上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格의 그들의 文學은 結局 그들 自身의 험상스런 厭世主義의 表現에 不過했다。

나뽈레온의 말대로『空想은 아직도 世界에 君臨하고 있다。』人間은 恒常 自己向上을 꾀하고, 神을 찾으며 理想을 찾는다。人類가 存續하는 限 理想은 언제나 그 머리위에 드리워 있을것이고, 人間性이 存在하는 限 理想主義는 不斷히 人類를 보다 나앗게 引導한다。

說話文學은 十余世紀의 長久한 時期에서 언제나 이 理想性을 놓지 지 않았다。國家社會에 가장 切迫한 危險은 尊貴한 義務와 運命의 高尙性의 基盤을 이루는 理想主義精神을 喪失하는 것이다。 社會現象에 對해서 絕望한다는것은 스스로의 運命을 腐敗에로 내어디되는 第一步라는 敎訓을 說話文學은 담북 지니고 있다。

또한 日常生活의 繁雜와 疲勞속에서 우리가 小說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動機는 決코 世間의 墮落이나 悲痛이나 錯雜을 보려는데 있지않고 마음을 풀고, 新鮮한 즐거움을 얻으려는데 있다。 民潭의 世界의 興味나 웃음이란것은 퍽으나 重要하다。 興味나 웃음이 없이 우리는 疲勞한 마음을 풀기 어렵고, 理想이나 希望없이는 우리는 즐길힘도 싸울힘도 喪失해 버릴것이다。

精神分析學者들이 내세운 命題대로 說話文學은 民族의 꿈이었다。 神話, 傳說은 上代人의 抱負와 大理想과 憧憬의 反映이요, 民潭은 그들의 諧謔과 풍刺와 웃음이었다。 한결같이 十余世紀의 長久한 歲月을 理想主義性으로 一貫된 이 文學은 실상히原始의 들판에서 素朴하고 單純한 속에 迫力性있는 未熟心의 즐거찬 웃음으로 이루워 진것이다。

三。人間性의意義

1. 基本槪念

人間性이란 신性의 아래에 그리고 獸性의 위에 자리잡는것이다。 이 신性과 獸性의 中間에 位置하는 우리 人間의 性品은 이것이 위로 신性을 向할때는 神의 領域에 들어서서 神性에 못지않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表象될때도 있으며니와 이때로 獸性을 向할때는 實로 개짐승보다 醜할때도 許多할수 있는것이다。 人間主義, 人道主義等의 이름밑에 이 人間性의 解釋에만 生涯를 기우린 許多한 哲學

者를 우리는 볼수있거니와 우리들 自身이 人間이기때문에 人間的인 것의 그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無關心할수는 없다。「人間的인 너무나 人間的인」것, 人間의 虛弱性 醜雜性를까지라도 人間的인 것이기 때문으로 依해서 慈眼과 理解를 우리는 그 위에 기우리고 싶거니와 어느나라를 不問하고 說話文學에 보이는 人間性이란 아래로 獸性을 向한 要素는 드물다。여기에는 먼저 人間的인 것 即 人間으로서의 自然과 現實等 人間性의 核心面을 爲主하고 다음에 神性을 向한 理想的인 面이 脚光을 입고 登場된다。民譚分野의 性慾을 主題삼은, 說話조차도 체ㅅ살에 걸려서 興味的 풍刺的이고 諧謔的인 要素를만이 남아서 모여가지고 얘기가 구수한 特定雰圍氣밑에 形成된다。

2. 儒·佛·道敎에의同化

그런데 여기 上代 說話文學속에서 우리 韓國의 人間性을 찾아보려는데 앞서서 우리는 몇가지 더 前提해야할것이 있다。그것은 全歷史를 通해서 韓國의 精神을 形成하는데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 儒佛道 三敎에 說話文學의 産出과 傳承과 향有의 精神이 다 이미同化가 돼 있다는 事實이다。儒佛道 三敎 流入前에 韓國的 精神 形式의 唯一한 基盤이었다고 할 固有神敎를 中心한 一聯의 思想的 要素들이 오히려 儒佛道 三敎의 要素보다도 極히 稀薄하다。일찌기 모오리스·쿠우랑 (Mourice Coulant) 이「韓國사람은 그 精神과 文化에서 하나도 創造를 못하고 全혀 中國의 影響下에서 살았기때문에 韓國의 精神과 文化를 理解하려면 먼저 中國의 儒文을 살아야 한다。韓國의 精神과 文化는 儒敎의 테두리안에서 形成됐다。」고 했거니와 그것은 李朝의 歷史性을 爲主했던 얘기고 高麗以前과 說話文學의 世界는 오히려 더 많이 佛敎的 思想의 基盤위에 形成된다。

그까닭은 이러하다。都大体가 上古的인 신話類는 固有文字를 못가졌던 탓과, 外來文化 流入後의 경視로인지 우리 韓國 獨特의 다른 모든 文化分野의 文獻 인滅과 같이, 아니 오히려 더 甚했이 그 記錄物들이 거의 全滅狀態로 遺失돼 버렸다。그리고 傳說類 爲主의 說話文學이 三國, 統一新羅代에 繁盛하고 豊요했던것은 佛敎가 國敎化된 麗代가 마치 說話文學의 定着 記錄 整理期에 該當했던 까닭이다。佛敎는 그本質의 一面인 平民性이 說話文學의 産出이나 傳承 享有의 心性과 多分히 迎合되나 다음 李朝時代에 내려가면 人智 發達의 段階로 봐서도 그러려니와 儒敎의 그 理智性 貴族性때문에 거의 說話文學은 不姙期에 들어서고, 겨우 庶民들間에 傳承되서 正統아닌 平民文學에 한목을 보며 庶民들 품안에 안겨들어가고 만다。

모든民族이 그 原始期에 반드시 産出하는 天地 開벽이나 宇宙創造나 民族 乃至 始祖의 起源에 關한 神話, 그 밖에 直觀 斷片的인 無數한 있었어야 할 神話들은 다 散滅되고 神話의 遺産面으로 볼때 寂寂히 檀君神話外의 몇々을 남기고 우리는 完全히 破産狀態이다。三國以後는 벌써 外來思想에 물들기 始作하던 때이고, 設令純粹히 固有的인 우리 精신 基盤에서 産出된 것이 있었더라도 그 精신을 完全히 말비이끝고 壓倒的이었던 外來思想의 基盤위에서 長久히 流動傳承되는 동안에는 도한 同化되지 않을수 없었다。嚴格히 말해서 그것은 同化가 아니고 中和作用現象이다。그래서 上代 說話文學에 보이는 人間性이라 해도 勿論 그것은 어떤 民族 固有 思想만을 基盤삼고 形成된 人間性이 아니라 固有신敎思想에 다시 儒佛道 三敎의 攝取를 基盤삼은 精신이다。

이제 韓國 風土위, 韓國社會에서 우리 上代人들이 그 精신, 그 마음씨를 어떻게 품고서 對社會的으로 觀想하고 行動했는가? 이것

이 說話文學에 어떻게 反映되나왔는가? 그 說話文學속의 對社會的인 觀想과 行動에서 形成되던 모든 모습들을——그러니 亦是 內面的 存在인 人間性 이라기보다 外形上으로 實地 눈에 보이던 人間像이라고 할을 고쳐서——잦아 보려는 것이다。

四. 說話文學에 보이는 人間像

說話文學은 그 考察하려는 見地에 따라서 于先 分類가 되야 한다。 古來로 學者들이 分類해온 分類法은 千態萬象으로 一定한 分類法이 없고 同時에 唯一이라거나 最上, 絕對라고 할 方法도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 人間像을 考察해 보려는 見地에서 上代 文獻속의 材料를 全部 모아서 모은 그 對象을 一段 建國說화, 護國忠勇說話, 戀情交婚說話, 說明緣起說話, 佛敎說화, 其他의 여섯 部門으로 主題分類를 해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建國神話

分類의 便宜上 檀君神話와 다섯개의 卵生說話를 여기에 歸屬시켜야 될것같다。이 모두가 各 部族社會集團의 始祖 起源說話로서 한결같이 始祖의 偉大化 神格化 또는 英雄化로서 이루어진다。

檀君神話는 部族國家時代의 古朝鮮, 扶餘, 濊貊, 沃沮, 高句麗, 新羅伽倻諸國等 모든 部族社會가 가지고 있었을 다 같이 同等 同格인 始祖 起源 說話이다。그 傳承地域이 韓半島의 中央에 位置했던 것이기때문에 統一新羅 以後 大同江 어름 以南으로 萎縮된 國土內에서 大陸의 侵略에 對한 民族的 反抗 結束意識으로 더욱 韓國全体의 始祖神話로서 變化 發達을 보아온것이다。

下視 三危 太伯하고 弘益人間하기 爲하여 太伯山頂 神壇樹下에 下

降한 桓雄과 Totem 崇拜對象인 神格 웅女와의 사이라는 神聖 系譜밑의 誕生으로 御國 一千五百年에 在世 理化하고 弘益人間하여 壽 一千九百八歲에 다시 阿斯達 山神으로 化했다는데서 神話的인 上代人들의 素朴한 國家的 抱負와 民族的 理想을 于先 들여다 볼수있다。 그것은 Totem 宗教形態와 敬天思想 山嶽崇拜思想等 原始的인 心性에서부터 싹트러나온 理想이요 抱負였다。그러나 그 抱負와 理想은 平安道 南쪽 黃海道 一帶에 자리잡고 있었을 古朝鮮이라는 이름밑의 一氏族 乃至 部族的인 始祖神을 一說話文學의 定着 整理期에 該當하는 高麗時代에 들어서 그 자취를 볼수있는것같으나——統一新羅以後의 北方 失地의 回復 思想, 北方族의 暴惡 無道한 侵略에 對한 國民的인 鬱憤에서 오는 統一 團結 意識에 다시 神話自体가 가지는 統一整序 觀念의 作用을 받아서 高句麗의 始祖 朱蒙을 檀君의 아들이라 (三國遺事, 王曆第一 高麗 第一東明王條에 『……名朱蒙。一作추蒙。檀君之子』) 하고, 北扶餘王 解夫婁도 또한 檀君의 아들이라 (三國遺事 卷第一 高句麗條, 註文에 『檀君記云 產子名曰夫婁。夫婁與朱蒙 異母兄弟也』) 하였다。그 確實한 文字上 定着은 麗代에서 보나 모든 部族國家의 始祖가 다 檀君의 아들이고 모든 韓半島의 百姓은 다 檀君의 子孫이란 觀念을 國民에게 뿌리박아 주었다。 그래서 韓半島와 滿洲大陸에 散在했던 古代 우리 版圖內의 諸部族國家中의 하나이었던 古朝鮮의 始祖 檀君은 麗代以後 全 韓半島 統一 國家의 唯一 始祖神化되고, 우리 上代人들은 그 唯一 聖祖밑에 統一 結束 意識을 굳게하고 檀君說話를 그러한 趨勢로 現代까지 傳承시켜서 民族意識 國家意識의象徵 昂揚体로서 가져왔다。 앞으로도 또한 그럴게 길이傳承될것이다。 說話文學에서 볼수있는 上代的인 一 소박한 理想性에 우리는 敬虔히 머리수기고 더욱 우리의 現實에 비추어 이

히한 結束意識로 가득히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어하는 者들이다。

다음 다섯개의 卵生說話는 赫居世의「辰韓之地 古有六村」이니 朱蒙의 五部니首露의 九干이니 六加야니 하는것이 다 氏族社會에서 部族社會에로 넘어선 社會 形態와 人智의 發達段階에서 나온 說話들이다。 다섯 始祖가 다 같은 卵生으로 그 誕生에 多少間의 差異를 보는것 같으나 第一 많이 傳承되고 發達되어 여러 文籍에 실려서 그 說話的 價値와 興味的 요소가 나은것이 朱蒙의 說話이다。 多少씩 誕生의 經위에 差異가 있으나 柳花가 自稱 天帝의 아들이라하고 自身은 五龍車를 타고 從者 百余人은 하얀 따옥이를 타고서 五色 彩雲이 떠들고 風樂이 울려오는 사이를 熊心山에 내려와서 十余日만에는 鳥羽之冠을 쓰고 龍光之劍을 차고서 即位한 解慕수의 교임을 받고 난 後에도 太陽光線에 感染해서 잉태하고 알을 낳는다는데서, 多少씩 差異있는 이 卵生說話들의 原型이 다 같이 太陽崇拜思想을 契機(motif)삼고 太陽神의 神聖系보를 이은 神人임을 表象하는것으로 부여이 北方系列의 神話的 傳播임을 보여준다。 그 알속에서도 또 神異한 誕生을 하고 武勇이 絶倫하여 百發百中하는 善射者 朱蒙에게 아기자기한 說話的 興味가 附隨되고 國家經倫의 雄略을 보여서 壯大한 說話를 構成하는 朱蒙說話는 實로 一大 로맨스가 아닐수없다。 誕生의 神異에서부터 四面楚歌하는 逆境속의 成長, 그 逆境의 힘찬超克, 神母의 愛顧밑의 用意周到한 事前選馬, 戰을味 넘치는 南奔, 다시 또 그 脫出前에 綿密한 神母의 母性愛로 創業의 根源이라고 五穀의 씨를 받는일。 그中에서 잊어버린 麥種을 물려보낸 비둘기 두마리를 한화살에 맞쳐서 麥種은 내고 다시 살려서 날려보내는 卓越한 技藝, 그리고 거기에 또한 天性의 膽略을 가지고 그날부터 활과 劍을 들고 일어서서 疾風迅雷的인 經略

으로 隣近 諸部族을 制壓하고 後世 東方의 一大 帝國의 基盤을 完成하는 不過 四十年의 짧은 生涯에 걸치는 說話는 三國 始祖中에서도 千秋에 最大 숭仰을 받음이 마땅하게 되있고 說話를 傳承하고 향有하던 後孫들에게 그 雄圖와 理想性을 몯구어 왔을것이다。 實로 北國的인 雄혼性과 果敢性이 一貫되서 그 底流에 흐르고 波瀾萬丈하는 속에서 보는 主人公 朱蒙의 모습은 참으로 痛快하기 그지 없는바가 많은것이다。 後漢書를 비롯한 三國志의 魏志, 梁書, 周書等 모든 中國 史籍들이 한결같이 『그 人性이 凶急하고 氣力이 있고 戰鬪에 익숙해서 구掠을 잘한다』고 한 上代 高句려의 帝王을 偉大化한 說話라, 說話主人公의 人間像도 人間像이려니와 傳承層도 또한 傳承層이어서 얘기는 隣近 諸部族의 制壓과 다음代 유리王의 成長, 繼位에까지, 그러니 前後 三代에 걸치는 大로맨쓰로 發達을 보고있다。 그러기 高句려 末王 寶藏王代 唐將 李적에게 平양城이 陷落되기前 遼東城이 唐 太宗이 이끌은 精兵에게 包圍되어 危急을 告하게 됐을때도 城中의 朱蒙을 모시는 祠堂에 美女를 丹裝시켜서 받치고, 무堂은 朱蒙이 기뻐해서 城이 반드시 安全하리라고 했다는것이다。

朱蒙說話의 이러한 北國的인 雄혼性과 發達된 興味性에 比하면 南方의, 다른 네 說話는 그 遜色을 免키 어렵다。

新羅의 六部의 始祖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살며, 和睦하게 閼川岸上에 모여앉아서 會議를 하는데 하늘에서 異常한 氣運이 서리고 빛이 드리워서 鳥獸가 춤을 추고, 天地가 振動하고 日月이 淸明한 밑에 神異한 誕生을 하는 赫居世에 對해서는 龍女 알英과의 婚配後에 더 많이는 話根(Root)의 添加를 至今 찾아볼 길이 없다。

脫解의 寄略, 儒理와의 王位相讓等도 赫居世의 說話와 같이 다 南國的인 明朗 溫和性을 보여주는것이다。

또한 駕洛國記 傳承의 首露對 脫解에 技藝다툼도 解慕수對 何伯의 技藝다툼을 傳播받은것으로 隣邦 敵對國間의 說話이면서도 同部族內 氏族의 勢力다툼이던 朱蒙對 松壤의 技藝다툼보다 熾烈하지도 痛快하지도 않다。

같은 脫解王代의 卵生 金알智도 그 誕生의 神異도 擇吉日後에 太子冊封을 받으나 亦是 婆娑王에게 讓步를 하고 即位치 않고서 新羅 金氏의 始祖가 됐다는것이 新羅의 六氏族 同盟 國家中 一氏族인 金氏의 始祖 神聖化 說話이겠으나 그 南方的 新羅的 和睦性의 表象인 点에서 다른 南方系 說話와 同軌이다。

以上 다섯개의 卵生說話가 다 北方에서 高句麗를 거쳐서 내려온 說話形態로 太陽光線에의 感染後의 卵生이라는 点에서 太陽숭拜思想을 契期삼았다는 原形을 第一 鮮明하게 밝혀준것이 朱蒙說話이고, 남어지는 다 그 變化形들이다。 이 모든 部族國家의 百姓들은 다 한결같이 太陽과 光明을 숭仰하는 思想을 堅持해서 後世까지 길이 우리 國民風속上에 影響준 百姓들이었다。

2 護國忠勇說話

護國 忠勇 說話는 將軍 英雄들에 關한 說話와, 死後에 아직도 그 넋이 護國 忠勇의 一念으로 사무쳐서 發現되는 神異說話와, 그리고 花郎徒들의 武勳說話로 三區分이 될수있다。

新羅 三統의 大人物 金庾信將軍은 胎期 二十個月만에 七曜星의 遺生으로 몸에 七星무늬를 가지고 誕生하여 十五歲에 花郎이 되고 十七歲에 山中에서 老人에게 術法을 배우고 寶劒을 얻고서 劒術其他

에 通達한다。 이 稀世의 大將軍에게는 奇異한 일이 無數했다。 그 實은 高句麗의 間諜이면서 여러해를 郎徒로서 潛伏했던 白石에게 교임을 當한줄 모르고 大膽히 단 둘이서 같이 高句麗에 潛入해서 그를 討滅키 爲한 情報를 探知코자 그만 死에 들어가다가도 三神女의 敎示를 받고 오히려 以禍 轉福으로 間諜 白石을 되속여서 묶어가지고 목베인다。 그 아들 元述郎이 戰場에서 敗北하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보지않으려던 유信公과 그 婦人의 例와 같이 스파르타의 어머니를같은 母婦人의 嚴訓을 銘心했던 유信公은 自身도 버릇이 돼서 다니던 妓女 天官의 집에 버릇대로 찾아들어가던 말을 醉中에도 卽刻에 뛰어내려서 선뜻이 한칼에 목베이던 秋霜같은 決斷으로 着着 그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루어간다。 百濟의 侵犯으로 大梁州가 뺏기고, 城主인 春秋公의 사위 品釋이 家族들과 같이 自決하자 분激하는 春秋公과 같이 손까락을 깨물어서 피를 나누어 빨고 報復의 出征길에서 勝利를 盟誓한다。 그에게는 唐軍이 食糧不足으로 窮勢에 빠져서 請해온 軍糧米補給에 唐慌하는 朝廷의 論議를 물리치고 部下를 거느리고 軍糧米 數萬石을 이끌고서 突入하여 敵中을 橫斷하여 드리어는 高구麗를 滅亡시키는 勇猛 果敢이 있는가 하면, 敵兵에게 包圍되어 命在 頃刻인 友軍을 設壇 祈祭로서 그 都城에 앉아 敵兵을 分散시키고 救出해내는 神異도 많았다。 그래서 유信公은 死後에도 興虎大王이란 追封을 받고 무덤속에 누워서도 더 그 사무친 護國 一念을 繼續 實踐한다。

百濟의 佐平 成忠은 下獄되면서도 그 義慈王에 對한 直言 極諫으로 또한 將軍 階伯은 마지막으로 여기고 決死覺悟의 軍士 五千만을 거느리고 黃山벌에 勇敢히 싸우고 죽어서 各各 百濟의 忠誠과 武勇魂의 마지막을 裝飾한다。

그러나 三國 武士氣質의 가장 端的이고 시원스러운 場面을 우리는 朴堤上의 境遇에서본다。高句麗에 人質로 간지 十年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王弟 寶海公, 日本에 人質로 간지 三十年에 亦是 아직 돌아오지 않는 王弟 美海公의 救出을 눈물과 더불어 奈勿王에게 議論받은 群臣과 國中 豪俠 武士들에게서 異口同聲으로 推薦된 이를테면 勇猛이나 智略 機敏으로 當代 第一流가는 武士라고 손꼽혀서 나온 삽羅郡 太守 朴堤上, —— 그는 高句麗와 日本에 있는 두 王弟 救出이라는 이 어려운 일을 奈勿王에게서 분부받자 即席에서 서슴없이 이렇게 말한다。『臣이 듣건데 임금의 근심은 臣의 辱이오, 임금의 辱은 臣의 죽음이라。 萬一 일의 쉽고 어려움을 論한 後에 行한다면 그것은 忠이 아니요, 죽고 살것을 해아리고 나서 움직인다면 勇이 아닌줄로 아옵니다。 臣이 비록 不肖하나 御命을 어찌 擧行치 않으오리까』하고 기뻐하는 임금에게 술잔을 받고 握手를 받고 凜々히 일어서서 御前을 물러나온다, 單身 變服을하고 北海路로 高子麗에 潛入해서 王弟寶海公을 救出해 내는 그의 苦心과 아슬아슬한 모險들은 實로 그 모두가 劇的 場面들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는 다시 國王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에는 王弟 美海公을 救出키 爲하여 왜로에 돌아오지못할것을 覺오하고 亦是 單身으로 日本땅에 突入한다。 그 智略과 機敏과 勇猛으로 當時 第一가는 人物로 손꼽혔던 그인만큼 無事히 日本땅에 들어가 얼마後에는 속여서 그 國王의 信任과 寵愛를 받게 된다。 그리고 얼마간의 時日을 둔 努力의 結果 計略을 써서 美海公만은 脫出을 시키고 스스로는 드러어 倭王앞에 묶여간다。 그는 重錄을 준다는 甘言에도 아랫도리의 가죽을 베끼는 고問에도 秋毫 不屈로 「鷄林의 개는 될지언정 倭國之臣은 안된다」고 끝내 샛빨가ㅎ게 달군 鐵版

위에서 壯烈히 如前 鷄林之臣이라 웨치면서 泰然히 죽어간다。 說話文學에 보이는 人間像, 이것은 바로 三國 武士魂의 昇華이다。

朴堤上 죽은 後에 님의 설움 일어없다。

異域春宮은 뉘라서 뫼셔 오리

至今의 치述嶺 歸魂을 못내 슬허하노라

李朝 丙子 胡亂後, 같은處地에 國情이 놓인 事情을 松岩 李廷煥은 杜門不出하던 그의 丙亂 悲憤歌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修身 齊家後에야 治國 平天下라고 全보다 個를 忠보다 孝를 重히 여기고 迫力있고 單純性 그득하던 武士魂이 더욱 시들어들었던 時代에서 李朝人의 이것은 참으로 어쩔 道理 없던 心懷였을것이다。

元聖王의 護國三龍이나 未추王의 무덤속의 竹葉軍 指揮等의 神異도 神異려니와 亦是 三國 武士譚 護國 忠勇說話의 精華는 花郎徒들의 活動에 있다。

將軍 品日의 아들 官昌은 弱冠 十六의 花郎으로 出戰해서 두번 세번 빗발치는 화살속에 突入해서 끝내는 階伯앞에 목을 베이었지만 敗軍의 大勢를 勝勢에로 돌리고 散花해서 國家의 泰安을 열게하고 名將 階伯으로 하여금 허물럴고 嘆服케하였다。

이러한 十五, 六歲의 꽃같은 少年武士들의 勇猛, 果敢, 武功들은 不知其數로 흠運郎의 戰死도 이에 못지않아서 當時 後人들은 陽山歌를 지어서 그를 弔傷했다。

劍君은 몇해간의 기謹에 同僚들이 倉庫의 官穀을 털은것을 花郎徒라는 自覺에서 받지않는다。 그리고 罪狀이 暴露될것을 두려워해서 殺意를 품은줄알고 請하는 同僚들의 宴會에 自己가 正當하면서도 避하는것이 오히려 大丈夫답지 않다고 나아가서 飮食에 毒藥이 있는줄을 알면서도 泰然히 이것을 마셔버린다。 生命이나 죽음을 鴻

毛와 같이 여기는 그모습에 더욱 不義와 卑法은 더 容納되지 않은 이 일이 우리에게는 至今 理解하기조차가 어렵게 되었다。

大武功을 세운 十六歲의 花郎 斯多含은 加耶人 三百口의 賜賞을 받고, 최다 이것을 놓아주고 다시 田地의 下賜에 또한 固辭하고 쓰지못할 땅을 조금만 받았다。 武官郎과 같이 죽기를 盟誓했던 그는 武官郎이 病死한지 七日만에 슬퍼하다가 또한 十七歲를 一期로 죽어버린다。 그 두터운 友誼와信義에 그 淸廉이다。 바야흐로 불그스레하게 피어나려는 꽃봉오리들이 난자하게 뚝々 떨어져가는 그것은 참으로 그지없는 아리따움이요 愛情들이다。

箒項과 貴山은 처음으로 円光法師에서 世俗五戒를 받고 그 後에 戰場에서 窮勢에 빠져서 아버지인 將軍 武殷이 落馬하는것을 보자 『武士는 싸움에 나가서 決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円光法師에게 들었던 五戒를 곧 살리고 實踐에 옮긴다。 두 少年 武士가 같이 창을 휘두루고 勇躍 突進해서. 友軍의 士氣를 鼓舞하여 뒤따르게하고 마침내는 大勝을 거두었다。 知와 行의 一致라는 單純하고 實踐하기 어려운 이 일을 그들은 참으로 簡單하게 그리고 참으로 勇敢하게 해내었었다。『賢佐 忠臣이 이에서 나오고 良將 勇卒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와서 三代의 花郎이 無慮 二百余人 그 芳名 美事가 하나같이 傳記와 같다』고 三國史記에서 金富軾이 筆致에도 더욱 金大問이 그렇게말했다고 힘이 생긴다。

花郎道 精神은 이를테면 中世 歐羅巴의 騎士道 精神이요 日本 戰國時代의 武士道 精神이겠으나 또한 그것이 거이 十五, 六歲의 꽃봉오리같은 少年들이 피어오르는 無垢한 氣象임에 더 한층 嘆服됨이 많다。 新羅의 피어오르는 國運이 이를 꽃같은 氣象과 같이 피어났을고, 그 三統의 大業도 피어오르는 花郎道 精神과 같이 이루

이겼다。 新羅 三統의 大業과 現今의 南北統一의 聖業은 그 어느 것이 歷史的으로 重要한가는 돌려놓고 現在의 우리에게는 우리이 當面課業이 더 重하지 않을수 없는바이기 그 精神面을 아무리 時代와 意識이 바뀌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完全히 無視할수는 없는것이다。

3. 戀情 交婚說話

戀情交婚說話는 大略 神婚과 異物交婚과 戀情交婚의 三部類로 區分이 돼야 하는것같다。

帝釋 또는 上帝의 아들 桓雄과 Totem 숭拜對象인 웅女와의 神婚, 自稱 天帝의 아들인 解慕수와 河伯의 딸柳花와의 神婚, 卵生의 赫居世와 鷄龍 左脇에서의 出生 童女인 알英과의 交婚, 亦是 卵生인 首露王과 皇天上帝의 御命에 依해서 南쪽에서 배를 타고온 阿유타國 公主와의 交婚등이 모두 敬天思想이나 太陽숭拜思想을 契期삼은 始祖의 系譜를 神聖化하는 說話들이다。

異物交婚에는 경堂의 村女와 지렁이 사이의 誕生, 武王의 寡婦와 池龍과 사이의 誕生, 金現의 虎女와의 交婚等이 있으나 퍼으나 古代的인 속信을 反映해서 나왔을것이기 詳論할 겨를을 못얻겠다。

다시 異物交婚의 亞流라고 할것에 眞智大王의 魂의 還生과 桃花女의 交婚이 있다。 같은 國王으로 智哲老王의 陰長 一尺五寸에 마땅한 王后를 모시기가 어려워서 使臣을 三道에 보내고, 身長이 七尺五寸되는 處女를 얻어서, 모시고 王后로 삼으니 群臣이 모두 이를 慶賀했다는 얘기에서 性的 事實에 對해서도 퍼으나 소朴한 上代的 心性을 엿보는것같다。

戀情 交婚 說話에서는 먼저 金유信 朴堤上等 將軍의 境遇에서부

더 들어야겠다。 오래동안 보이지 않던 유信公의 來訪에 반가움에서 내달으며 맞으며하는 女姓 天官女, 그러나 그에 對해서 銘心했던 母婦人의 嚴訓과 三國統一이라는 平소의 大使命感에서 即席에 뛰어내며서 그 말을 선듯이 묵배고 들아서는 秋霜같은 決斷의 유信公, 그리고 敵地 高子麗땅에 潛入해서 單身으로 無事히 使命을 다해서 王弟 寶海公을 救出해낸 男便 朴堤上이 한번 집에 들리지도 않고 다시 死地 日本으로 건너가는데 對한 思慕와 離別의 사무치는 哀情으로 말을 몰고 달려서 푸른 바다, 모래 沙場에 나서서 懇切히 불러보는 그의 안해, 그러나 배는 멈추지도 않고 그저 손만 저어보일뿐 파아란 하늘과 바다사이로 까마득히 사라져버리던 朴堤上의 境遇를은 實로 三國武士의 毅然하고 凜々한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듯한 浪漫性그득히 서려있는 場面들이다。 울어져서 限없이 울어버리는 天官女 나중에 다시 鷄述嶺에 올라가서 男便을 기다리다가 끝내 돌로 굳어버리고 鷄述嶺神母가 되는 朴堤上의 안해, 그러한 女性의 熾烈한 戀情에 秋毫의 未練도 없는 個々 將軍들의 決斷에 窮地에 處했던 新羅는 隆盛을 거듭하고 國家的面目을 키워갔다。

異民族 支配의 樂浪을 처부수려는 大望으로 自鳴鼓를 쳤기 爲했던 王子好童의 政略婚은 女性의 熾烈한 愛情앞에 祖國도 父母도 보람이 없는듯했으나 끝내는 그 祖國도 父母도 樂浪公主自身도 다 같이 破滅해야되는 運命을 招來했다。 한편 生母아닌 王妃의 謀陷과 사랑없은 虛無感에서 王子 好童自身도 또한 自決케 함으로써 人間性의 北國的인 深刻을 보여주고있다。

유信公의 計略으로되는 春秋公과 유信公의 妹弟 文姬와의 交婚. 百濟 武王의 智畧婚이 또한 그 亞流가 될것들이다。 다음에 洛山 二大聖의 調信의 꿈은 人生一場 春夢格이라는 佛敎的 覺悟說話요 殊

異傳의 心火燒塔이나 首挿石南, 三國史記 列傳의 溫達 嘉實 都彌의 說話들이 典型的이요 代表的인 戀情說話들이다。

豊滿한 美人으로 有名했던 善德女王을 그 行列의 수레속에서 잠間 한눈을 살펴보고서는 그만 사무치는 戀情에 속을 태우게된 愚直한 시골 靑年 志鬼는 드디어 미쳐버리고 憂愁에 차서 눈물을 흘리고 形容이 憔悴해 버린다。 無識한 놈이라고 非難을 들으나 어쩔 수없이 돼버린 그는 焚香次로 擧動하신 女王의 行列에 뛰어들어서 混亂을 일으킨다。그리고는 曲折을 左右 臣下에게 들은 女王의 부름을 받고서 行列뒤를 따라가고, 山門앞 石塔아래서 焚香을 마치고 나오실 女王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이미 憔悴할대로 憔悴해서 氣盡 脈盡했던 그는 一刻을 如三秋로 안타까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昏수狀態에 빠져버리고 만다。 焚香을 마치고 나오며 그 모습을 보고 측隱히 여겨서 그의 가슴위에 女王이 베껴서 놓고간 팔찌를 잠간 精神을 차려서 만져보게된 그는 다시 煩悶하여 氣絕해 버리고 나니 마침내 心火가 이글 이글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되어올라가지고 塔을 두루고 끄스른다。 그는 變身해서 드디어 火鬼가 된다는것인데 참으로 熾烈을 極한 戀情의 說話的인 表現이다。 眞摯하게 그 靑年期에 熱々히 戀情을 품을수있는 靑年만이 장차 社會에 나가서 自己가 맡은 事業에 온갖 情熱을 기우려서 이것을 훌륭히 다 해낼수 있는것이라고 어떤 瞑想家는 말했다。 志鬼의 境遇는 愚直하나 참으로 그 戀情의 極致요, 心大요塔은 그런 迫力있고 素朴한 說話的 表現으로서 可以 代表的인것이라 할수있는것이다。

新羅의 崔항은 愛첩을 두고서 父母의 嚴禁으로 보지못하기 數個月에 이르다가 드디어 暴死를 하고만다。 그러나 說話文學의 話根(Root)은 暴死했다는데서 單純히 그치게 하지를 않고 暴死한지 八

日제되는 날 밤에 죽은 항으로 하여금 첩의 집을 찾아가게 한다。 첩은 이미 그가 죽은줄은 모르고 기쁨에 넘쳐서 업퍼지고 자빠지며 내달아서 迎接한다。 항은 목멜미에 꿎았던 石南가지를 첩에게 나누어주며 「父母가 이제는 同居하기를 許諾했노라」고, 그래서 「데리러 왔다」하고는 밤中에 그집에 데리고와서 自己는 담을 넘고 들어 가버리니 첩에게는 새벽까지 消息이 없었다。 새벽이 되서 나가본 家人들이 殊常해서 물어보니 自初至終을 얘기하는 첩에게 家人들은 「무슨怪常한 소리를 하느냐? 항은 이미 죽은지 여드레, 오늘은 장事지낼 날이라」고 한다。 郎君이 石南가지를 이렇게 첩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러면 이것을 證據삼아 관을 열어보자는 첩의 얘기대로 열어보았더니 果然 石南가지가 뒷덜미에 끼워있었고, 옷은 이슬에 젖어있었고 신발이 헤여져 있었다는것하다。 죽어서도 보고 싶은 戀情一念은 이러한 說話的 熱愛를 表現했거니와 비로서 그 郎君이 죽은줄 안 첩은 痛哭을 마지않고 곧내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항이 다시 살아나와서 또한 같이 偕老하기를 三十年하고 목숨을 마쳤다는 것이다。 精神分析學派를 얘기대로 說話는 흔히 原始的 思想 조形에서가 아니라 꿈이나 精神疾患에서 나왔다는것이 이쯤되면 首肯이 돼야할것 같기도 하다。 如何튼 이런것은 꿈같은 憧憬과 素朴한 慾望이 上代的 心性을 거쳐서 說話化된 것만은 否定할수 없는 일이다。

어렸을때부터 警句삼아 들어오면 거지같이 가난하고 흥칙하게 생기고 바보인 溫達을 그래 도고이 가슴에 품어두게 되었던 平岡公主는 그 純愛를 기우려서 그러한 溫達을 凜々한 高句麗의 勇將으로 만들어 낸다。 亦時 꿈같은 上代的 心性에서 나온 티끼없고 유快한 浪漫이다。 眞平王代 沙梁의 青年 嘉實은 栗里의 民家 설氏女

외 어여쁨을 보고 즐거이 그 處女의 아버지 代身으로 防役을 말아서 邊方에 나간다。 處女가 成婚할 證據品으로 半分해서준 거울한조각을품고 그는 邊方에서 아득히 故鄕땅과 處女를 그리면서 몇해를 지내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結婚한다는 牧歌的이고 淳朴한 說話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그 굳기찬 貞烈性을 表示한 것에 都彌의 話說가 있다。

百濟 蓋婁 代人都彌의 안해는 그 美貌로써 世上에 널리 알려있었고, 그 夫婦의 琴瑟之樂으로써 또한 널리 世人의 羨望을 받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을 탐낸 蓋婁王은 都彌를 宮中에 붓들어 놓고 밤에 그 집에 이른다。 그의妻는 왕을 속여서 下女를 粉裝시켜서 들어보내고 왕의 慾情을 채워주나 나중에 이것을 안 왕은 마침내 都彌의 두 눈 瞳子를 빼서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一葉片舟에 실어서 강물에 흘려버린다。 그러고 다시 그 妻에게 가서 榮譽와 權勢로 强要를하니 그는 마침 月經때라속이고 逃亡쳐서 조각배위에 말할수 없는 失望과 孤寂에 사로잡혀 있는 남전 都彌를 찾아서 같이 물결흐르는대로 배를 몰아서 高句麗땅으로 들어가 버린다。 萬乘之君의 威勢와 權力앞에 風前燈火같은 가냐르픈 一個 村婦의、 그러나 終乃꺾이지 않았던 純潔과 强勇이다。 一切의 權勢와 誘惑에 하나도 귀기울이지않고 착한 하나의 지아비를 宇宙처럼 떠받들고 살아간貞烈속의 熱愛와 純愛의 代表的인 戀情說話이다。 그外에 說明 緣起 說話, 佛敎 說話가 또한 許多하겠으나 本標題와는 多少 相距가 있겠기 省略한다。 마지막 其他의 部에 呪力과 奇異와 解夢 占卜에 關한 說話가 있으나 亦是 標題와 相距가 있고 또한 極히 少數의 分量이나 몇개의 孝行說話가 있는것도 至今은 紙面關係로 省略을한다。

五. 結 言

精神分析學者들의 말대로 說話文學은 民族의 꿈이었다。 그것은 上代人의 希望과 理想과 憧憬을 基盤삼고서 모든 對象을 觀察하고 思想하는데서 피어나왔거니와 그 心性이 한번 外的으로 行動을 取하는 人間像을 그려낼때에는 굳기찬 迫力의 人間을 보여준다。 將軍 花郎들의 三國武士譚에서, 또한 戀情說話에서 우리는 數多하게 그러한 迫力있는 行動性을 보아왔다。

제본스(Jevons)에 依하면 또한 說話文學은 未熟心에서 나왔다。未熟心은 이를테면 原始的 思考로서 直觀的 斷片的이고 흔히는 矛盾性 非合理性도 內包하지만 그러한 心性이 人間像을 그려낼때에는 또한 單純과 素朴의 美德을 갖춘人間을 그려낸다。

混亂과 不安의 世紀에서 우리는 오늘날 複雜과 懷疑를 부둥켜안고 머뭇거리면서 산다。 이것이 오늘날의 人間像이라면 꿈과 未熟心위에서 피어나는 憧憬과 理想이 그려내던 人間像은 素朴하고 單純한 心性에서 나오는 迫力있는 行動的 人間이라는 것이다。 複雜과 懷疑를 一段 거쳐서 우리는 至今 此岸에서 人類가 이미 건너온 彼岸의 이 素朴, 單純, 迫力을 돌이켜보고 거기에 鄕愁를 느끼면서 그것을 찾으려고하는, 피에데 (Goethe)의 이른바『複雜을 包容하는單純』을 堅持하려는 者들이다。

東西洋의 모든 나라 散文々學分野에 長久한 時日을 그 理想主義性을 堅持해온 이 說話文學의 史實에서 우리는 많은 敎訓을 얻어야한다。아무리混亂되고 不安한 現在에서도 끊임 없이 理想을 堅持할수있는 心性을 키우고 單純이 美德으로 不斷히 迫力있는 行動性을 行使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끝) (筆者 國文學科敎授)